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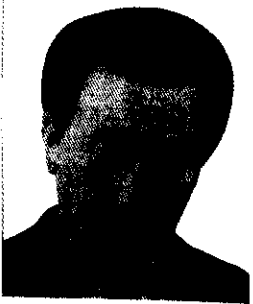
# 북한을 움직이는 사람들(4)

유영구 / 중앙일보 북한 전문기자

이번에는 앞에서 빠진 노동당 비서 및 정무원 부총리들을 비롯해 당부장들 가운데 주요 인물 등 15명의 프로필을 자세히 소개한다. 이 달에 다루는 인물들은 담당 분야가 제각각이므로 분야별로 나누기 보다는 직급별로 나뉘어 나뉜다. 순서는 1994년 7월의 김일성 사망시 발표된 국가장외위원회 명단에 따른다.

## <당비서>

### 김기남



북한 언론계의 원로급에 해당하는 김기남 비서는 당에서 선전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혁명 유가족이 아니지만 6·25때 가족 여러명이 전사한 전사자 가족으로 알려져 있다. 전사자 가족은

혁명 유가족 다음으로 대접받은 '알짜 성분'에 해당된다.

김기남은 김일성종합대학 특설학부를 마치고 모스크바국제대학에 잠시 유학한 뒤 외교계통(1952년 5월 내각 외무성 참사, 1957년 6월 주중국 대리 대사, 1958년 당국제사업부 과정)을 거쳐 1960년대 이래 선전 계통에서 잔뼈가 굵었다. 출판지도과·신문지도과가 특히 그의 발판이었다. 1960년대 초반 소련 고급당학교에 연구원으로 잠시 다녀오기도 했다.

김기남은 1966년 무렵 김정일이 당선전선동부 과장으로 일할 때 같은 부서의 부부장이었다. 그는 김정일의 영화·가극 제작에 적극 협조해 깊은 인연을 쌓았다. 문예 부문에서 김정일에게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라는 호칭을 먼저 쓰기 시작한 것도 김기남의 아이디어라는 얘기가 돌린다.

김정일이 부부장·부장 대리로 승진한 뒤에 상황이 역전되어 오히려 김기남이 그 밑에서 일하게 된다. 그럼에도 김기남의 남다른 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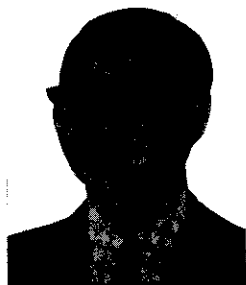
이 김정일과 더욱 밀착하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인연으로 오늘날까지 북한중의 축근으로 손꼽히게 된 것이다.

김정일은 1973년 9월 조직사상비서가 되면서 이른바 '사실혁명'을 제창했는데 당시 선전선동부 부부장(신문 담당) 김기남이 실무를 총괄 지휘했다(부장 김국태). 그는 아예 언론기관으로 자리를 옮기 '신문혁명'을 주도했다. 신문혁명은 김일성 유일사상체계와 김정일 유일지도 체계에 부합되도록 신문을 환골탈퇴시키는 작업이었다(1973년 12월 「로동자」 책임주필, 1976년 4월 「로동신문」 책임주필, 1976년 12월 기자동맹 위원장 겸임). 이 성과에 힘입어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되고 1986년 4월 이후에는 당선전선동부장으로 발탁돼 선전 총수가 되기에 이른다.

그는 6차 당대회 보고 등의 집필 성원(당중앙위원)으로 참가할 정도로 정치 이론 수준과 필력을 갖춘 인물이기도 하다. 보도 매체를 총지휘할 뿐 아니라 김정일 문헌 작성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고 한다.

그에게도 정치적 시련은 있었던 걸로 관측된다. 1987년 9월에 제1부부장으로 강등, 그해 10월부터 1989년 7월까지 동정이 끊긴 사실이 있다. 그러나 1989년 12월에 당선전선동부장에 복귀하고 1992년 12월에 당비서로 승진해 김정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

## 김국태



김국태는 전직 '선전통'으로 김기남보다 앞서 당선전선동부장을 거쳤으며 지금은 사상담당 비서로 김정일을 보좌하고 있다.

그는 김책(빨치산 출신으로 내각 부수상·선전사령관 역임, 1952년 사망)의 장남으로 만경대혁명학원 1기생이다. 김정일이 조직지도부 책임지도원으로 일할 때까지는 김국태에게 '형님'이라 부를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다고 한다.

김국태는 김일성종합대학 특설학부를 마치고 모스크바대학에 유학한 뒤 1956년에 귀국해 당간부부 지도원으로 간부 생활을 시작했다. 그뒤 1961년에 당간부부 부부장, 1963년 8월에 군총정치국 부총국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배경도 좋고 김정일과도 밀착 관계를 유지해 왔음에도 진급은 늦었다. 1969년의 김창봉·허봉학 사건에 연루돼 실각한 그의 동생 김정태는 30대에 민족보위성 부상을 받고 있었다.

그는 철학을 전공한 당사상이론진의 한사람으로 당대회 보고 등 당문헌 작성에 참여해 왔다. 1968년 2월부터 당선전선동부장으로 선전 부문에서 맹위를 떨치며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주도해 나간 장본인이다(1970년 11월 5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 그는 1967년 5월

박금철·이효순 사건 직후 전임 선전선동부장 김도만을 반당 분자로 숙청하고 선선 부문 관계자들을 대폭 물갈이 했다. 또한 당역사연구실을 김일성 혁명역사연구실로 확대 개편하고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대대적으로 출판해 김일성의 신임을 얻었다.

김국태는 또 선전선동부장 시절에 김정일 후계체제를 출범시킬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앞장섰다. 김정일의 초상화를 김일성 초상화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방침도 그에게서 나왔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는 1977년 10월부터 1980년 7월까지 주에티오피아 대사로 해외에 나가기도 했지만 1983년 3월에 당선전선동부장에 복귀했다. 그밖에 과학교육부장(1984년 8월)·간부부장(1985년 6월) 등 요직을 거쳤고 1976년 6월과 1990년 5월에는 잠시 김일성고급당학교 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1992년 12월에 보디어 당비서로 발탁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초 당간부부장을 겸하게 되어 간부사업을 맡다가 요즘은 국제 부문으로 담당을 옮긴 황장엽을 대신해 사상 분야도 맡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귀순자 강명도씨는 김국태가 노동당 안에서 보수파를 대표하며 개혁·개방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권력 유지에만 집착한다면 강성산·김달현과 라이벌 관계에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 황장엽



황장엽은 김일성의 철학 담당 비서를 지낸 당내 사상 분야의 1인자로 지금은 국제 담당 비서로 일하고 있다.

그는 함북 주을 태생으로 8·15후에 김일성종합대학 특선학부를 거쳐 1949년에 모스크바종합대학에 진학해 정통 마르크스 레닌주의 철학을 배웠다. 1954년 10월에 귀국한 그는 김일성종합대학 철학강좌장 및 교수로 교단에 섰다. 1958년에는 과학원 사회과학 부문 위원을 겸하였다.

그가 노동당의 핵심 지위로 발탁되어 정치적으로 부상한 것은 1959년 12월에 당선전선동부 부부장을 맡으면서이다. 김일성의 눈에 들어 이 무렵부터 김일성의 철학 비서로 활약하게 된다. 이런 인연으로 1964년 10월에는 김일성 수상을 모좌하는 내각 참사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정치 분야에서 활동하던 황장엽은 1965년 4월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에 임명됨으로써 대학 책임사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때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1972년 12월까지 대학에 머물렀다. 황장엽이 대학 총장을 하던 시기는 북한에서 김일성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고 김정일이 당의 조직 선전 분야를 진출하던 시기인 만큼 황은 음으로 양으로 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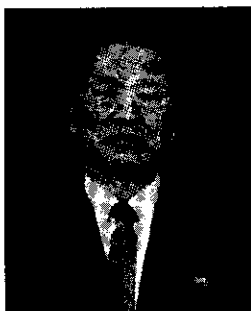
일을 후원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김일성의 철학 비서 시절에 김정일의 개인 교수도 겸한 인연이 있다. 그는 김일성의 조카 사위(이종 사촌 처남 설도 있음)인데다 철학 비서로 일하면서 두각을 나타내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에 오를 수 있었다.

황장엽은 대학 총장 시절에 제출한 박사 학위논문 “사회주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 분제” 때문에 김일성 사상과의 차이로 비판받았으나 강직 당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황장엽은 1970년 11월의 5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 1980년 10월의 6차 당대회에서 당비서를 맡게 된다. 1982년 4월부터 1983년 4월까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을 다시 한차례 맡았다가 1983년 3월에 당비서로 복귀한 뒤 지금까지 당비서로 일하고 있다. 그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이나 당비서로 일하면서 김정일의 이른 부문 보좌역도 수행해 김정일 명의의 담화 및 논문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사상 분야를 담당하다 1993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을 맡기 얼마 전에 국제담당 비서로 직무가 바뀌었다. 당시 국제 담당 김용순 비서는 대남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황장엽은 그밖에도 1986년 9월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1987년 12월에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에 임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김중린



김중린은 현재 근로단체 담당 비서이지만 오랫동안 3호청사 책임자로 일한 대남통이다.

평북 벽동 태생인 김중린은 삭주군에서 국민학교 교원을 하다

가 8·15를 맞이했고 해방뒤에는 공산당 벽동군당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1947년에 노동당 중앙당학교 특별반을 거쳐 1948년에 함북도당 비서(피현군당 선전부장 설도 있음)로 일하면서 당료의 길을 걷는다. 그뒤 1954년 3월에 당 중앙위 부부장, 1961년 5월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중앙위원, 1961년 9월에 당중앙위 후보위원, 그리고 1965년 1월에 당문화부장을 역임했다(일설에는 1950년 평북도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1953년 소련 고급당학교 유학, 1956년 당국세부 과장, 1958년 당국체부 부부장, 1959년 당문화부장을 역임했다는 설도 있다).

김중린은 1960년대에 일본 조총련을 통해 「김일성전」을 각국어로 번역, 출판해 해외에 보급한 계기로 김일성의 눈에 들었다. 이런 수완은 김정일에게도 발휘되어 「향도의 별」이라는 선전물이 일본에 보급되었다. 그가 대남공작과 관련, 조총련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김중린의 경력에서 중요한 것은 1969년 4월

에 당 대남 담당 비서를 맡은 일이다. 이에 힘입어 1971년 11월에는 당중앙위원 및 정치위원으로 도약했으며 1972년 12월에는 중앙인민위원회 위원까지 맡는 등 권력의 핵심부까지 진입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1976년 9월에 당정치위원 및 비서에서 해임되는 비운을 맞는다. 김정일이 대남 사업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면서 기존 대남 사업의 체계와 실무를 전반적으로 뜯어고쳤으며 김종린은 대남사업 전반에 분제가 있다는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다. 즉 김정일은 1976년 4월의 대남 부문의 겸임 사업 총화 후 공작기구의 조직 개편과 인사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남조선문제연구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종린은 1978년 3월에 당정치위원으로 재기하고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는 당정치국원 겸 비서로 영광을 되찾는다. 그러나 다시 강등의 곡절을 겪는다. 1984년 2월에 당정치국 정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탈락하고 1985년 2월에는 아예 정치국에서 빠져버린다. 이와 관련 아웅산 테러의 실패에 따른 인책 설이 지배적이다.

1987년 3월에 조선중앙통신사 사장으로 전보됐다(1987년 6월~1989년 10월 공보위원장도 겸임). 재기의 화신 김종린은 1988년 11월에 당 비서로 복귀하지만 대남 사업에선 손을 뗀다. 다만 대남 사업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 때문에 지금도 이 분야의 정책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그를 대남 분야에 재기용하거나 정책 조언자로 활용

할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

김종린은 성격이 급해 아래사람들에게 채근하는 일이 잦으며 기억력이 비상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지 않는 등의 성격상 결함도 있지만, 실무 능력이 뛰어나고 노력형 간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김용순



김용순은 김정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대남·외교의 사령탑이다.

1934년 함북 회령에서 태어난 그는 김정일의 외가쪽 친척으로

알려져 있다(귀순자 강명도씨는 그가 김정일의 외가 친척이 아니라고 주장).

김용순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뒤 2년간 모스크바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유학한 경험이 있으며 1956년 귀국해서는 당국제사업부 지도원으로 간부 생활을 시작한 외교 신문가이다. 그는 지병(만성심장병 설과 당뇨병 설) 때문에 1960년 1월 이후 거의 10년간 강원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방사업을 했으며(1969년 6월 원산시 인민위원장) 1970년 8월부터 72년 2월까지 이집트 대사로 나가기도 했다.

1973년 3월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김용순은 각국과 문화 교류 협정에 조

인하는 등 활발한 외교 활동을 벌여 북한에서 가장 자주 해외에 파견된 인물의 하나로 기록되며 서방 세계를 잘 안다.

그가 국제 부문의 쟁쟁한 실력자들을 제치고 1976년 국제사업부 부부장으로 진격 발탁된 것(당중앙위원은 1980년 10월)이나 1984년 2월에 국제미서·국제사업부장으로 급부상한 것은 김정일의 후광에 힘입은 것으로 관측된다.

1985년 8월에 당국제사업부 제1부부장으로 내려 앉았다가 1988년 12월에 다시 당국제부장으로 다시 올라 섰다. 1989년 11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부위원장(겸임), 1990년 5월에는 당 국제 담당 비서로 재승진해 원래의 지위를 되찾았다.

그는 1992년 4월에 허남의 사망(1991년 5월) 아래 공석이던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으로 선출돼 메테랑 외교 테니스코랏 김영남과 함께 북한외교를 이끌어 왔다.

그가 대외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1990년 9월 일본 자민당의 가네마루 신과 북일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을 이끌어내는 데 산파 역할을 하고 1991년 2월 일본을 공식 방문, 북일 수교 회담을 본격화시켰기 때문이다.

그의 협상 능력과 외교적 수완은 1992년 1월 미국을 방문해 아널드 캔터 국무부 정부 담당 차관과 북미 수교 논의를 벌인 데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는 북한 지도자로는 보기 드물게 세련된 매너와 화술로 이목을 끌었다.

그는 1992년 12월에 당정치국 후보위원에 발

탁돼 최고 권부에 진입했으나 그뒤 후보위원에서 빠졌다(1993년 초로 관측). 그는 대남 사업을 맡은 이래 농정이 잘 잡히지 않다가 1993년 4월에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을 맡아 당·의회·조평통(부위원장) 세 부분에서 대남 사업을 관장해 왔다.

김용순은 1994년 7월에 갑자기 만들어진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대남·대일·대미 관계를 총괄해 역할이 더욱 커졌다. 그는 대일 외교의 주역 어종혁, 대남 사업 전문가로 신헌상에 나선 전금철을 아태평화위의 부위원장으로 거느리고 있다. 김용순은 1994년 7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에 북측 수석대표로 참가한 이홍구 총리의 카운터파트이기도 했다.

그런데 외교관 출신 귀순자 고영환씨는 “김용순은 치밀하지 않고 정책적인 두뇌 회전이 빠르지도 않다는 것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그가 ‘석부’라는 별명으로 통한다”고 증언한다. 그럼에도 김정일과 그 밑의 사람들이 김용순을 좋아하는 것은 “그가 들고 보고 먹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 〈부총리급〉

### 김창주

김일성의 사촌 동생(김형록의 장남)인 김창주는 특정 분야의 주특기는 없지만 행정 관료

로 농업 분야에서 비  
교적 오래 일했다.

그는 1946년에 김일  
성종합대학, 1950년에  
모스크바대학에 들어  
가 김일성 일가로서는  
제대로 교육받은 몇

안되는 인물중의 하나지만 공부에 흥미를 보이  
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55년에 귀국  
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1959년에 책임지도원을 거  
쳐 과장으로 올라갔다. 1962년에 노동당 농업  
부 부부장으로 일하면서 농업 분야와 인연을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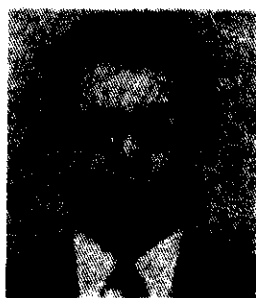
그는 1969년 7월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부위  
원장으로 발탁되어 지방사업을 보다(주색잡  
기의 사회적 물의에 따른 강직 설도 있음) 1972  
년 11월에 내각 제8사무국장에 임명됐다. 제8  
사무국장은 김일성 가계의 우상화시설 관리를  
책임지는 자리이다.

김창주는 당·정 핵심 간부로 부상할 듯하다  
가 1975년 1월에 주이라크 임시 대리 대사로  
나가 1977년 9월까지 외국 생활을 했다(1978년  
에 평북 구성시당 책임비서 좌천 설도 있음).  
그는 1982년 4월에 재무상해 정부원 부총리로  
발탁됐다(이때부터 당중앙위원). 처음에는 농  
업위원장을 겸하다가 1989년 10월 이후 농업위  
원장 겸직이 해제되어 부총리직만 맡고 있다.

김창주는 가정 배경에 비해 출세를 못한 편

이다. 이에 대해 김정일이 권력을 좌지우지하  
면서 친인척의 요직 등용에 반대했기 때문이라  
는 관측도 있다.

## 김윤혁



정부원의 행정 경제  
관료로 무난하게 자리  
를 지켜온 김윤혁은 금  
속·건설 분야에 밝다.

해방후 김책공업대  
학 금속공학부를 졸업  
한 김윤혁은 레닌그라

드종합대학에 유학해 금속공학을 전공했다.  
1956년에 귀국하면서 노동당 중공업부 지도원  
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1960년 이후  
북한이 당시 자랑하던 강선제강소와 성진제강  
소의 당비서·지배인으로 일했다. 1969년에 노  
동당 중앙에 들어가 중공업부에서 일하다가  
1973년 10월에 황해제철소의 기사장으로 다시  
생산 현장에 나왔다.

그는 강선·성진제강소에서 일할 때 공장 확  
장공사 및 강재 생산 초과에서 성과를 보여 김  
일성으로부터 신임을 얻었다. 그뒤 1977년 12  
월에 정부원 사무국장으로 관계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부터 줄곧 정부원에서 일했다. 이 시  
기에는 김정일의 유일지도체제 확립에 적극 나  
서 김정일로부터 신임을 얻었다.

1980년 3월부터 1981년 5월까지의 정부원 금

속공업부장(김일성 교시에 이의를 달다 1982년부터 황해북도 행정경제위원장으로 좌천됐다는 설도 있음), 1986년 6월에 중앙자재총연합회사 총사장, 1986년 8월에 정부원 제1부총리, 1986년 12월에 정부원 부총리 겸 건설경제공업위원장으로 일했다(1988년 2월 건설경제공업위원장 겸직 해제).

1980년 10월의 6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으로 선출된 김윤혁은 수리에 밝고 머리가 비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장 철



장철은 문화 예술 부문에 종사하다 김정일의 신임을 얻어 부총리까지 올라간 재일 동포 출신이다.

조총련 출신으로는 김병식 부주식(사회민주당 위원장)이 최고 높은 직위에 올라 있지만 실무 부서에서 싱장한 해외 동포 중에는 장철이 최고 직위다.

1957년 5월에 조총련 중앙교육부 차장, 1961년 5월 조총련 교육부장을 역임한 그는 1965년 10월에 북송선으로 입북해 1966년 8월 내각 문화성 부상으로 전격 발탁됐다. 내각이 1972년 12월 정부원 체제로 바뀌면서 정부원 문화예술부 부부장을 계속 맡았고 1986년 6월에는 문화

예술부장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0년 5월부터는 정부원 부총리와 문화예술부장을 겸해온 김정일의 문화 예술 정책의 집행자이다. 1970년 11월에 당중앙회 후보위원, 1988년 3월에 당중앙위원에 선출되기도 했다.

## 전문섭



국가검열위원장 전문섭은 김정일을 어린 시절부터 보살피 온 가신(家臣)그룹의 한 사람이다.

문출신인 그는 김정일 후계체제 안정과 관련, 국가 검열 기능이 커진 시점에서 검열 총책을 맡고 있다(정부 직제상 부총리급에 해당). 앞으로 그가 사회안전부 혹은 인민부러부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함북 부산 출신인 전문섭은 소년 시절부터 김일성을 따라 다니며 호위병·전령병으로 일했고 해방 뒤에도 김일성 호위부대 중대장으로 군생활을 시작했다. 6·25 전쟁 시기는 사단 참모장·사단장으로 참전했으며 종전 후엔 3군단 부군단장·7군단장(1956년 4월)·2군단장(1960년 8월) 등을 두루 거쳐 1961년 9월에 2집단군 사령관(상장)으로 올라섰다.

또 1961년 9월 4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으로 선출된 그는 1964년에 사회안전성 부상 겸



호위국장으로서 발탁됐다. 1971년에는 호위사령관이 되는 등 김일성 곁에서 밀착 경호하는 책임을 맡아온 전형적인 호위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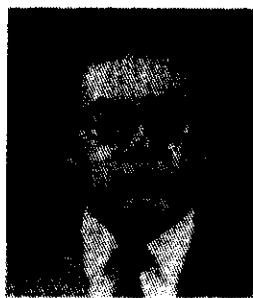
김정숙 사망 이후 백학림·주도일(사망)·이두익·조명록 등과 김정일을 돌보는 데 앞장선 전문점은 호위국내에서 김정일 유일지도체제를 세운 장본인이다. 당원로들이 김정일을 후계자로 추천할 때 그를 비롯한 빨치산 소장층이 적극 나서 뒷감당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74~1975년간에 김성애의 치맛바람을 제거하는 데도 앞장선 김정일 후계체제의 중추 기둥이다.

그뒤 1975년 4월에 당정치위원회 후보위원에 선출된 전문점은 1980년의 6차 당대회에서 당정치국 위원, 당군사위원에 선출됐다. 1980년 3월부터 평양 위수사령관으로 일하다가 1984년 7월~1986년 12월간 국가검열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군문을 일시적으로 떠났다. 1985년 10월에는 정치국에서도 물러났다. 그럼에도 정치국 위원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점은 1988년 5월 인민부력부 부부장(1987년 4월 대장)으로 군에 복귀했다가 1992년 4월에 정부원 국가검열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만일 김정일 후계체제에 위기 국면이 조성된다면 즉각 전면에서 이를 수습할 ‘배수진(背水陣)’적 인물이다.

## 〈당부장〉

### 현준극



현준극은 대외 사업과 언론 분야에 종사해 온 전문 관료로 지금은 당국제부장을 맡고 있다.

만주 용정중학을 중퇴한 그는 빨치산 2세인 덕택에 8·15 이후 귀국해

만경대혁명학원을 거쳐 김일성종합대학 특설학부를 마쳤다. 1950년 모스크바종합대학으로 유학을 떠난 현준극은 1954년에 귀국해 노동당 선전선동부 지도원으로 임명되면서 언론과 인연을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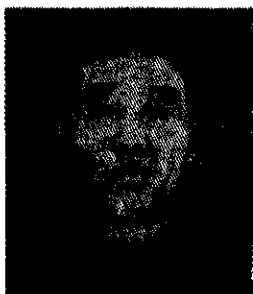
그는 1956년 노동신문 편집부장, 1959년 4월에 노동신문 부주필, 1959년 11월에 노동신문 사장, 1962년 7월 조선노동당출판사 사장 등을 역임, 북한 언론계의 중진으로 성장했다(1960년 10월 조선기자동맹 부위원장).

언론계에 뿌리를 내리던 현준극은 1963년 내각 외무성 부장으로 갑자기 외교 분야로 업무를 바꾸게 된다. 1967년 6월에서 1977년 1월까지의 주중국 대사를 역임하고 1977년 5월에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1978년 5월에 당국제사업부 부부장(1972년부터였다는 설도 있음), 1980년 2월 당부부장 겸 정부원 참사, 1983년 9월에 당국제사업부 제1부부장, 1986년 3월에 국제사업부장, 1987년 2월에 국제부장 등을 맡아

노동당의 외교 정책을 실질적으로 책임져 왔다.

25년여간 대외 사업을 맡아 일하던 현준극은 1988년 12월에 노동신문 책임주필을 맡아 언론계로 되돌아 갔다가(1989년 7월~1995년 5월 조선기자동맹 위원장 역임) 1994년 12월에 당 국제부장을 다시 맡아 김정일의 외교 사업을 돕고 있다. 그는 주중국 대사로 일한 경력이 있어 중국통인대다 국제사업부에서 일본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는 1975년 4월에 당중앙회 후보위원, 1979년 6월에 당중앙위원에 선출됐다.

## 원동구



원동구는 화학 분야의 전문가 출신으로 직업총동맹 위원장을 거쳐 현재 당중앙위 근로단체부장이다.

그는 근로단체에서 일하기 전에는 주로 행정부에서 일했다. 1956년 8월에 내각 중공업성 화학공업관리국 부장, 1962년 5월에 내각 중공업위원회 부위원장, 1964년 4월에 내각 금속공업성 화학공업총국장, 1965년 10월에 내각 화학공업성 부장, 1973년 11월에 정부원 화학공업부 화학공업총국장 등 화학 분야에서 승진을 거듭해 1977년 12월에는 화학공업부장으로 최고 실무자가 되었다. 화학공업부장 자리에는 1982년 4월까지 앉아 있었다.

정부원에서 불리난 그는 1989년 12월에 직업총동맹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1992년 5월까지 일했고 근로단체 관리 업무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1993년 11월에 당중앙위 부장으로 전격 발탁됐다(당중앙위원은 1980년 10월 6차 당대회 때). 현재 김종린 비서 밑에서 직업총동맹과 농업근로자동맹 등을 지도, 감독하고 있다.

## 이창선



이창선은 문화계 출신으로 노동당 3호칭사의 사회문화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사회문화부는 간접과건 및 교육을 주업무로 하고 밀봉 교육을 위한 초대소, 귀환 간접의 숙소용 초대소 및 연락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대남 사업에 뛰어들기 전에는 문화 분야에서 산배가 곱았으며 김정일의 문화 예술 부문 사업을 보좌해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당 내에서 '김정일 사람'으로 통한다.

그는 1955년 7월에 내각 문화선진성 부장, 1958년 내각 교육문화성 문화국장, 1960년에 내각 문화성 선전국장 등을 거쳐 1961년 7월에 당으로 자리를 옮겨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선진사업을 맡았다. 선진 사업 중에서도 그가 주로 담당한 것은 문화 예술 부문이었다.

그는 1962년 10월에 다시 내각으로 건너와 문화성 부상, 1970년 3월에 문화성 제1부상, 1972년 8월에 문화상, 1972년 12월부터 (기구 개편에 따라) 정부원 문화예술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정부원 문화예술부장 자리를 1986년 5월에 장철에게 내주기까지 14년간 일했다. 1986년 5월 이후는 당중앙위 부장으로 일한 것으로 관측되지만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는다(당중앙위 후보위원은 1973년 11월, 당중앙위원은 1978년 12월).

1989년 5월 노동당 정책 기관지 「근로자」 부주필, 1992년 4월 조선로동당출판사 부사장 겸 주필 등 당 언론기관에 잠시 몸담았고 1993년부터 사회문화부를 맡고 있다. 김정일이 그의 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해 대남 부문에 문외한인 그를 3호청사로 불러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오극렬



노동당 3호청사의 작전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오극렬은 공군에서 잔뼈 굵은 김정일 측근이다.

작전부는 상주 간첩에게서 건네오는 정보의 운반, 단기 정찰 공

작원 파견, 고정 간첩 호송 등을 담당하고 북한 지역에 초대소로 불리는 훈련소를 갖고 있다.

그는 빨치산 2세(오중성의 아들)로 만성대학 병학원 1기 출신이다. 김일성종합대학 특설학부

를 마친 그는 소련 공군대학에 유학했다. 그는 1953년에 귀국, 평북 피현비행장 편대장에 부임해 길고 긴 공군생활을 시작했다. 1960년에 소련 군사아카데미(공군)에 재차 유학을 다녀오기도 한 북한 최고의 공군통이다. 1964년에 공군연대 사령관(소장), 1967년 10월에 공군사령부 참모장(중장), 1969년에 공군사령부 부사령관, 1971년 8월에 공군사령관 등을 역임해 공군 최고 지휘관으로 승진 가도를 달렸다. 그뒤 1977년 11월에 부총참모장을 거쳐 1979년 9월 군작전 계통의 최고 책임자인 총참모장(1980년 9월 상장, 1985년 4월 대장)으로까지 올라갔다.

그는 최신 군사 과학을 익힌 고급 지휘관으로 공군 현대화 사업의 주역이었다. 1969년 1월 김창봉·허봉학 사건 때 공군사령부 내의 이들 추종자들을 색출, 제거하는 데 공을 세워 김일성으로부터 정치적 신임을 얻게 된다. 1967년 이래 공군에서 김일성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데도 적극 나섰다.

1979년 9월에 총참모장으로 전격 승진한 것은 김정일의 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1970년대 중반 김동규 사건 당시 총정치국장 이용무, 인민부력부 부부장 상정환, 작전국장 임철, 후방총국장 이필선 등 김정일 유일지도체제 확립에 반대하는 군지도자들을 군에서 내모는 데도 앞장섰기 때문이다.

당쪽에서는 1970년 11월 5차 당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에 선출되고 1979년 9월에 총참모장과 함께 당정치위원회 후보위원으로 반탁됐다. 그

리고 1980년 10월의 6차당대회에서는 정치국 위원 및 군사위원, 1982년 4월에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에 임명됐다.

그런데 1988년 2월에 갑자기 고령의 최광이 총참모장에 취임하면서 오극렬의 해임이 확인됐다. 그뒤 1988년 4월의 임춘추 부주석 사망시 장례위원회 명단에 당중앙위원들 속에 이름이 열거되면서 정치국 위원 해임이 확인된다.

그러나 1988년 9월 당중앙위 부장으로 재기해 중요성이 여전히 높다. 그가 총참모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오진우와의 갈등으로 빚어진 결과로 알려져 있다. 오진우가 자신이 교통신로로 집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에 오극렬이 인민부력부장 직부 대리를 하면서 군을 자기 사람들로 채웠다고 김일성에게 고발해 오극렬이 철직 당했다는 것이다(군내 정치조직을 약화시키려 했다는 혐의).

그러나 김정일은 오극렬을 아껴 당중앙위에 불러 들여 당민방위부장이란 직책을 새로 만들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당직전부장 전보 시기는 미상). 오극렬은 1991년 5월 허담 당 정치국원 사망 때 장례위원회 명단에선 부총리까지의 상층 간부보다는 하위지만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 4월 김일성훈장 수여자 명단에 올라 간재를 과시했다.

그의 경력과 강희, 오진우의 사망, 그리고 김정일 비서와의 연계로 보아 총참모장 혹은 인민부력부장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일부 신문가들은 오극렬은 이미 군계

통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당직에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귀순자 강명도씨는 오극렬이 인민군 총정치국 부총국장 이봉원과 라이벌 관계라고 증언한다.

## 권희경



당 대외정보조사부장 권희경은 15년쯤 구 소련대사를 역임한 외교 베테랑이다(1972년 1월~1976년 6월, 1980년 2월~1990년 2월). 소련 대사로 일하

던 시기의 북소관계를 염두에 둘 때 그의 비중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중간의 3년반은 정무원 외교부 부부장이었다.

그의 경력에서 구소련 대사 외의 직책은 1965년의 내각 외무성 부상, 1976년 8월의 정무원 외교부 부부장 등이 알려져 있다. 그는 1980년 10월의 6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 후보위원으로, 1988년 3월의 당중앙위 6기 13차 전원회의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어 당내 기반도 확고하다.

그는 일제때 김일성 백치산부대와의 연계 아래 장백현 지구에서 활동하다 '혜산 사건'으로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해방 5개월 전에 사망한 권영벽의 조카여서 정치 성분이 좋고 능력도 있어 확고한 임지를 마련했다.

그는 구소련 대사를 그만둔 직후부터 당조사

부장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대남 정보를 종합 수집, 판단해 대남 비서 김용순에게 보고하는 대외 정보 조사 책임자 자리다. 대외정보조사부는 한국의 정보 및 안기부·미국 CIA·일본 내각 조사실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대러 감행 등을 임부로 삼고 있다. 모스크바·베이징·베를린·도쿄·광저우(중국)·마카오·싱가포르·홍콩·하바나 등의 지부가 한국 관련 정보 수집 창구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오랫동안 소련 대사를 역임해 대외 정보의 흐름에 밝고 수집·분석 능력도 뛰어나 반탁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사 시절에 매년 2~3 차례는 평양에 귀환해 각종 고급 정보를 김정일에게 직접 보고,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귀순자 강명도씨는 권희경이 군부내 소련과 김봉철(전인민부령부 부부장, 1995년 7월 사망)과 함께 러시아에서 핵기술을 도입하는 데 공로를 세웠다고 증언한다.

## 강석승



강석승은 김일성의 의척으로 당 선진 부문을 거쳐 노동당의 혁명 전통을 정립하는 업무를 맡아온 당료다. 노동당 내에서 김일성의 혁명 활동 역사와 가계

를 잘 아는 인물로 손꼽힌다.

그는 일제때 평양 숭실중학을 중퇴하고 철강소 노동자로 일하다 해방을 맞아 평양학원 및 김일성종합대학 특설학부를 마치고 1949년에 모스크바종합대학에 유학한 북한식 신진 간부 대열에 속한다. 그는 1954년 귀국하면서 당선전선동부의 지도원으로 당직에 발을 들여 놓은 뒤 1957년 10월에 당중앙위 부부장을 거쳐 1961년 1월에는 내각 내무성으로 자리를 옮겨 정치국장으로 일했다. 정치국장의 사찰업무를 고려할 때 강석승이 일찍부터 요직을 맡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1962년 2월에 평남인민위원회 내무국장을 거쳐 1963년 8월에 다소 이질적인 당중앙위 연락국 부장, 1968년 10월에 송도정치대학(남한 출신들의 간부 양성 혹은 대남 공작원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한 대학) 학장을 맡는 등 대남사업에 잠시 손을 대기도 했다. 송도정치대학을 운영해 본 경험을 높이 평가받아 1972년 4월에 노동당 중앙당학교 교장으로 임명됐다(12월에 김일성고급당학교로 명칭 변경).

그는 1975년 7월부터 지금까지 20여년간 노동당 역사연구소장으로 일해오고 있다. 그 뒤 1985년 5월부터 당사적부장(1978년 설도 있음)을 겸직해오고 있다. 당역사연구소장이나 당사적부장은 김일성·김정일의 우상화를 전담하는 직책이다. 그런만큼 김정일의 후계체제 확립에도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다.

그는 1980년 10월의 6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 후보위원, 1985년 5월에 당중앙위원으로 선출됐다. **2**